



바다가 탁트리고 고운 모래의 백사장이 일품인 운여해변의 일몰. 명품 일몰로 유명한 꽃지해변 못지않다.

태안 |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일몰 맛집 운여해변에서 가을을 느끼다

넓게 트인 백사장...경관 빼어나 인근 물담삼 탐방로 갖춰져 있어 청산수목원 팜파스그라스 장관 지역 별미 박속밀국낙지탕 일품

바다와 하늘을 질게 물들이는 낙조, 고즈넉한 여유가 넘치는 해안길, 그리고 풍부한 지역 해산물로 즐기는 식도락. 이런 것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면 가을 여행의 더할 나위 없는 명소가. 충남 태안은 가을 나들이객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여행의 낭만을 모두 만족시키는 곳이다. 지리적 거리에 비해 이동시간을 꽤 투자해야 하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시간을 들인 만큼 여행의 만족감이 높다.

● 걷는 재미와 보는 즐거움, 해변길 트레킹

해변길 7코스 바람길은 황포항에서 영목항까지 16km 거리다. 다 걸으려면 약 5시간 정도 걸린다. 대체로 평탄하고 아찔하지 않은 골짜기의 해안선과 바다 너머 크고 작은 섬들이 놓인 모습이 동해안과는 다른 재미가 있다.

운여해변은 앞바다가 넓게 트이고 고운 규사로 구성된 백사장 덕분에 경관이 매우 빼어난 곳이다. 꽃지해변 못지않게 이곳 일몰도 절경으로 꼽힌다. 바람아래는 사막처럼 너른 모래언덕 아래로 바람

도 비쳐간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가을 특유의 고즈넉한 정취를 바다가에서 느끼고 싶다면 이곳이 최고다.

만리포는 서해안의 대표적인 휴가명소로 주로 여름철에 많이 찾지만, 휴가철의 북적임이 사라진 가을에도 매력적이다. 활처럼 휘어진 모래사장과 주변의 소나무숲이 어우러져 해안을 배경으로 멋진 여행의 인생샷을 찍기도 좋다. 인근 물담삼은 데크다리로 연결되어 쉽게 갈 수 있는데 섬 내 탐방로가 잘 갖추어져 있다. 아쉽게도 섬의 명물 흔들다리가 현재 폐쇄 중이어서 이 구간은 우회로로 가야 한다.

● 푸른 하늘 아래 팜파스그라스서 인증샷

안면도자연휴양림은 국내 유일의 소나무 단수림이다. 수령 100년 내외의 안면 소나무(안면송) 천연림이 430헥타르에 걸쳐 지라고 있다. 나무를 비롯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방문객들이 소나무숲길을 편하게 즐기도록 데크길을 곳곳에 조성했다. 숙박시설도 갖추고 있어 일정에 여유가 있다면 1박을 하면 좋다.

봄철 꽃축제가 열리는 태안에는 수목원과 꽃 테마의 공원도 많다. 그중 하나인 청산수목원은 이맘때면 가을 정취를 물씬 풍기는 팜파스그라스와 핑크몰리가 장관을 이룬다. 서양에서도 불리는 팜파스그라스는 어른 키보다 높게 자라



청산수목원의 팜파스그라스. 만리포 해변의 물담삼 둘레길. 태안 지역의 별미 박속밀국낙지탕 (위 사진부터). 태안 | 김재범 기자

고 회색빛의 풍성한 꽃을 피운 채 줄지어 있는 모습이 이국적이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가을여행 인증샷을 찍기 좋은 곳 중 하나다. 요즘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핑크몰리 군락지도 수목원 내에 조성했는데 연일 사진을 찍으려는 방문

객으로 북적인다.

꽃지 해수욕장에 위치한 코리아플라워파크는 화훼 테마공원이다. 31일까지 가을꽃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 대하구이와 박속밀국낙지탕, 가을 식도락

태안은 서해 바다와 갯벌에서 나는 다양한 해산물로 유명한 식도락의 고장이다. 대하는 크기가 30cm 내외로 일 년 중 가장 맛있는 때가 요즘이다. 곳곳에 대하와 꽃게를 주메뉴로 하는 횡집이 즐비하다. 속칭 '오도리'라고 부르는 생대하부터 자작하게 찐 소금에 올려 굽는 대하구이, 꽃게탕, 지역 해산물을 튀겨 풍성하게 담은 모듬튀김, 모듬회, 그리고 대하 못지않게 가을이면 인기 높은 전어구이 등이 한상 푸짐하게 나온다.

박속밀국낙지탕도 지역 별미다. 지역에서 잡은 자연산 낙지를 박속을 넣고 끓인 육수에 넣어 먹는다. 박속국은 무와 다른 맛의 달큰함과 시원함이 특징인데, 뜨거운 육수에 싱싱한 낙지를 넣어 살짝 익혀 먹는 맛이 일품이다. 복잡할 것 없는 레시피지만 싱싱하고 질 좋은 지역 특산물이 어우러진 맛은 다른 곳에서는 느끼기 어렵다.

낙지를 먹은 뒤 수제비와 갈국수를 넣어 먹는 것은 거의 '국물'이다. 원복면의 원복식당 이 메뉴의 원조집으로 알려져 있다. 태안 |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대한항공, 19개월 만에 하와이 노선 재운항

대한항공의 하와이 하늘길이 다시 열린다. 11월 3일부터 인천-호놀룰루 노선 운항을 수·목·금 주3회 일정으로 재개한다.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4월 3일 운항을 중단한 지 19개월 만이다. 대한항공은 백신접종률이 증가하면서 최근 하와이 방문객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운항 재개를 결정했다. 하와이를 방문한 내국인 여행객은 1월 200여 명에서 최근 월 1000여 명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인천-호놀룰루 노선을 하루 2회씩 주 14회 운항했다. 대한항공은 해외 및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고 백신접종 증가율과 해외 방문객 증가 등을 반영해 중단 중인 노선들의 운항 재개를 검토할 계획이다.

코오롱스포츠, '가구로 재탄생한 패딩'



코오롱인터스티리FnC부문이 전개하는 아웃도어 브랜드 코오롱스포츠가 연진영 디자이너와 협업해 가구로 재탄생한 패딩 작품을 선보였다. 재고 패딩을 활용한 '패딩 모뎀 소파'(사진)를 제작했다. 사용된 패딩은 코오롱스포츠를 대표하는 미드다운인 '업라이트'의 겨울 재고 상품으로, 총 40발을 소파 제작에 지원했다. 코오롱스포츠는 패딩을 가구 오브제로 새롭게 디자인하고 재조합하는 과정을 통해 사물에 또 다른 기능과 가치를 부여하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했다. 협업 작품은 25일까지 국내 최대 디자인 전문 비즈니스 런칭쇼인 '2021 DDP디자인페어'에 전시된다.

네파, 멸종위기 고산침엽수 살리기 후원

네파가 자사의 이젠브 브랜드 흡소평 판매 수익 일부를 '구상나무 등 멸종 위기에 처한 고산 침엽수 살리기' 사업에 기부한다. '자연환경 보호 옹호자(Nature Environment Preservation Advocate)'라는 사명답게 창사 이래 지속적으로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온 네파는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함께 멸종위기기에 처한 우리나라 고산 침엽수 보호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이젠브 브랜드의 흡소평 판매는 네파와 코렐 패션의 협업으로 연말까지 진행된다.

하나투어 11년 만에 새 비전 담마 CI 교체

하나투어 하나투어가 새 슬로건과 CI(사진)를 공개했다. 하나투어는 '쉐이프 에브리데이 드림스'(Shape Everyday Dreams)를 새로운 미션으로 정하고 '여행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의 여행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기업의 존재 이유로 정의했다. CI도 11년 만에 교체했다. 여행을 상징하는 지도와 그 안에 하나투어를 상징하는 알파벳 'H'로 독창적 심볼을 표현했다. 하나투어닷컴과 모바일 앱도 단순 여행 판매매물이 아닌 여행을 만들고 즐기고 기록하고 공유하는 여행플랫폼으로 진화한다는 계획이다.

뽀글이 하나면 한파 대비 끝...신민아가 추천하는 노스페이스 친환경 플리스

이제적인 '가을 더위'가 지나가고 올해 첫 한파특보가 내리지면서 겨울 의류를 찾는 손길이 빨라지고 있다. 영원아웃도어(대표 성기학)의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는 급격한 일교차에 대비하기 위해 우수한 보온성과 포근한 착용감은 물론 스타일리시한 데일리 아이템으로 특별한 활용할 수 있는 'K-에코 플리스' 신제품을 추천한다.

'K-에코 플리스' 신제품은 노스페이스만의 기술 혁신인 'K-에코 테크'를 통해 제주에서 수거한 페트병을 리사이클링한 원

단을 적용했다. 세 시즌에 걸쳐 플리스 한 품목에서만 약 3000만 개의 페트병(500ml 환산 기준)을 재활용하는 등 진정성 있는 친환경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 제품인 '비 베타 다운 재킷'은 대세 아이템인 플리스와 솜패딩을 한꺼번에 활용할 수 있는 가성비 '갑' 아우터다. 블랙+라이트 베이지, 문라이트 네이비+아이보리, 화이트 샌드+핑크, 허브 가든+아이보리 등 대조되는 색상 조합과 소재 차이를 통해 다양한 코디가 가능하다. 슬랙스, 조거, 카고 팬츠 등 기본 아이템들과도 잘 어

울린다. 페트병 리사이클링 소재와 윤리적으로 인증(RDS) 충전재를 적용한 '착한 아우터'이다.

보온성과 스타일링 한 단계 '업'시킬 수 있는 코트 디자인도 여성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다. '플레이 그린 플리스 코트' 역시 페트병 리사이클링 원단을 적용한 '친환경 뽀글이'.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충분한 기장과 일체형 후드 디자인으로 가을은 물론 겨울까지 입을 수 있다. '일씨룩(Earth & Look, 지구에서 유래한 용어로 흙 같은 패션)'으로 연출하기 좋은 카멜 색상이 특



'비 베타 다운 재킷'을 착용한 노스페이스 홍보대사 신민아. 사진제공 | 노스페이스

히 인기가. 발랄하고 귀여운 스타일링 연출에는 '우먼스 플레이 그린 플리스 재킷'이 제격이다. 제주에서 수거한 페트병을 리사이클링한 원단을 적용했고, 모든 포켓에 지퍼를 달아 캠핑 등 아웃도어 활동에서도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0월 22일(금) 음력: 9월 17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청색 길방: 동
매사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단계가 아니다. 큰 계획이나 투자할 일이 있거든 재고하기 바란다. 기대만큼의 이익이 돌아오지 않았다. 때때 운은 급하게 서두르면 손해는 보겠지만 매대는 이루어진다. 오늘은 토끼의 날로서 육체할 일이다.	결단을 잘못 내려서 실패하기 쉬우니 다시 숙고하라. 이성하고 함께 하는 사업은 불리할 뿐만 아니라 영통한 오해를 살 수도 있었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맞지 않아 고민하겠으나 걸리면 나아지겠다. 조류계통의 상의를 입은 사람을 조심하라.	이일 제일 손대지 말고 안정된 직업이나 직장에서 꾸준히 노력하라.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힘들겠으나 작은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좋은 운이다. 이동은 금물이며 이사로 뒤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인내심을 가져라.	승진 운이 있으니 말은바 입구에 충실하되 경계방들을 삼가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계획을 실천에 옮겨라. 큰 발전이 기대 된다. 구직자는 원하는 곳에 이력서를 넣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일이 허사로 끝나기 쉽다. 자중자재 하라.	기회를 얻어서 일을 성사시키는 운이다. 모든 일에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게 되었고 특히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계획하면 더욱 길하겠으니 서서히 자기 페이스대로 나아가라. 너무 서두르지 말라.	친구나 동료 간에 자칫하면 우의가 갈릴 수 있으니 내 주장을 굽히고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하며 양보한다는 자세로 생활한다면 모든 액을 피할 수 있겠다. 가정을 잘 보살펴라. 반복적인 일로 피곤한 날이기도 하다.	남에게 원망을 듣기 쉬운 때이니 매사에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당장은 불안한 생각이 들겠지만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극적인 태도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운이다. 가벼운 여행이 도움이 되겠다.	이 보 전진을 위해 일부 후퇴할 시기이다. 따라서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며 남의 뒤를 쫓아간다는 식으로 생활한다면 별 무리가 없었다. 그저 먹고 자고 개기고 싶은 날이다.	정성을 다하면 작은 소원 성취는 되겠지만 큰 소원은 아직 성취될 때가 아니다. 무리한 투자나 확장을 삼가하고 수입을 늘리기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다. 소극적 행동을 취하라. 돼지띠를 만나 자문을 구하면 좋겠다.	매사가 풍선처럼 겉보기에는 아름답다 듯 하지만 그 풍선이 지나치게 팽팽하면 금기아는 터지고 만다. 하는 일이 위축될 수 있겠고 자금난에 봉착할 수 있어 수지 균형이 맞지 않아 고민이 많겠다. 음악이나 영화감상을 통한 휴식이 도움 되겠다.	소가 등을 비빌 언덕을 만나는데 대길한 운으로 널리 동지를 구할 수 있으며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유순한 자가 정당한 지위를 얻어 강력한 힘을 가지니 호응하는 자가 많아 기세가 등등해지는 운이다. 내일은 보상받는 날이 되겠다.

오늘의 날씨			22일(금)		
서울 0/0	인천 0/0	춘천 0/0	강릉 70/80	대전 0/0	전주 0/0
6 16	7 16	3 17	9 16	4 17	5 17
광주 0/0	대구 0/0	부산 0/60	창원 0/0	제주 20/2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7 17	7 18	10 19	8 19	14 18	최저 최고기온 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686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립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본·투고 02-361-1616 sol@donga.com